

# 아동도서 추천목록의 관점

## 한국아동도서목록의 종속문화적 상황

李重漢

출판평론가·서울신문 논설위원

이번 호가 아동도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5월의 첫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동도서에 있어서 추천도서란 어떤 것인가라는 주문이 필자에게 주어졌다. 당연한 주문이고 또 무엇이든 답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이용 추천도서'라는 상식적 개념부터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도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목록만 만들면 추천도서로서의 명목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형식에 의해서 대학교육이나 성인교육이나 또는 교양의 틀까지도 얼마쯤 그 지향과 요구들을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에 있어서는 이 출발점 자체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용 추천도서란 추천된 도서들에 의해서 정립된다고 보다는 '독자로서의 어린이'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모여서 정립되는 것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다른 기본조건이다. 그리고 이 점은 오늘날 살아 있는 많은 아동도서의 명작목록들이 그 자신의 역사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논증을 한다.

### '어린이독자'에 의해 선택된 책들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여행기'야말로 결코 어린이를 위해 쓴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아일랜드의 넓고 쓸쓸한 저택에 파묻혀 시대를 뛰어넘는 신랄한 사회풍자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바랐던 것은 가장 성숙한 성인들의 자기반성이었다. 그러나 1726년부터 어린이들은 스위프트의 끝없이 솟아오르는 상상력의 탁월함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역시 마찬가지다. 1719년에 씌어진 이 책에 대해 폴 아자르가 "어린이들이야말로 파산한 그들의 친구 로빈슨과 같이 미지의 땅에 내던져져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야말로 로빈슨처럼 쏟아지는 어둠을 두려워하는데 가장 바른 독자일 수 있다"고 말하듯이, 이 책도 결국은 영원한 어린이의 책으로 선택되고 말았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더 극적인 위치에 있다. 1678년 번연이 이 책을 썼을 때 오늘에도 그렇지만 청교도주의의 대표작이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어린이들에게서 놀라운 반응을 얻어냈다. 어린이들은 이 책속에서 '거인을 쳐 없애는 채크'와 같은 재미있는 모험의 이야기를 본 것이다. 사자를 물리치고 악한 적 아포리온과 싸우며 '의심의 성'에 갇히

### 어린이용 추천도서란

'독자로서의 어린이'의 선택에 의해

살아남은 것들이 모여서

정립된다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그러면서도 자국적 전통에 입각한다는

의도적인 기준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가장 강력한 의지를

함축한 일본의 아동도서 목록에

종속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고 '기쁨의 산'을 해낸 끝에 드디어 '왕의 궁전'의 빛나는 문에 들어가는 '순례의 놀이'까지도 그 후 어린이들은 만들어냈다. 이 반응에 관심을 가져 존 번연은 스스로 어린이를 위한 '신의 상징'이란 책을 쓴 일이 있다. 그러나 어떤 반응도 얻지 못하고 이 책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다.

어린이들이 무엇을 자기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가장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영국의 최초의 인쇄업자 캐스틴이었을 것이다. 그는 1481년에 '여우 레나드'를 출간했고 1484년에 '이습우화집'을 간행했다. 구전으로 이어져온 이 이미 익혀진 이야기들이 어떻게 책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를 가정한다는 일은 그 무렵으로서는 대단한 문화적 상상력일 수 있다. 캐스틴의 후계자인 위르테에 의해 드디어 아동도서문고가 시작된다. '가이오브 윌리크', '베이비스 오브 햄프턴', '발렌타인과 오손', '로빈 훗', '데인사람과 하벨록', '아다왕'들이 그 뒤를 이어 성공을 한다.

프랑스에서는 '지나간 옛 이야기들'을 쓴 샤를로 페로에 의해 1698년부터 어린이도서가 발아를 한다. 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 '빨간 두건', '신데렐라', '푸른수염', '장화를 신은 고양이', '다이아몬드와 개구리', '열손가락 아이'들이다.

### 자국의 문화적 전통에 입각한 목록 선정

가장 명백하게 어린이들을 위해 씌어지고 그리고 성공한 책의 효시는 아마 찰스 램의 '세익스피어 이야기'일 것이다. 그는 동시대의 골드스미드가 극도의 교훈성으로 쓴 어린이 책 '구두 두켈레씨'에 대해 "이 심한 악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어른의 경우와 같이 어린이들이 걷는 길에도 과학이 詩를 밀어버리고 등장을 했습니다"라고 콜리지에게 편지까지 쓴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쓴 것이 1806년 '세익스피어 이야기'이고 1808년의 '율리시스의 모험'이었다. 이 책들은 물론 "엘리자베드조 시대의 간소한 산문의 전형적 문체"의 모범으로까지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에까지 살아 있다.

미국에서는 나타니엘 호손이 업적을 남겼다. 12편의 그리스 전설을 이야기책으로 써서 호손은 1852년에 '소년소녀를 위한 이상한 이야기책'과 '탱글우드 이야기'로 간행했다. 그리고 그 뒤 영국에서는 1865년에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출간된다.

그러나 어린이만을 위하여 쓴 책들의 성공률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성인용의 성공한 책들을 조금더 풀어냈거나, 아니면 연령층과 관계없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의 어린이용 재정리의 범위를 결코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마크 트웨인의 '톰소여'와 '허클베리 핀'은 특별하다. 이 작품은 지금도 성인문화의 대표적 문학작품이면서 동시에 아동문학 작품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다.

이 조건, 다시 말해서 어린이 자신에 의해 선택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아동도서의 전형적 추천도서목록이란 실제로 찾아내기가 어렵다. 단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어 어떤 책들이 특별히 더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만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아동도서의 추천목록인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도서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추천의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는 명백히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자국적 전통에 입각한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전설과 옛 이야기 속에 근거한 민족적 특유의 문화감수성을 담은 것들에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이들을 어린이책으로 만들고 또 읽히는 데 나서고 있다.

그래서 데이비드 맥클런드라는 사회학자는 각국의 동화 속에서 그 국민의 성취욕구가 어떻게 표현되고 또 내재되어 있는가를 연구하기도 한다. 그의 이 연구는 '성취사회'라는 저서로 간행되었는데, 1920년대의 동화를 23개국에서, 1950년대의 동화를 40개국에서 수집하여 무려 1,300여편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적 열망과 성취동기 부여의

의지'는 독일, 일본, 레바논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읽는 아동들의 반응까지를 포함한 감응도의 분석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다는 또다른 측면도 제시되었다. 요구하는 성취도만으로는 레바논과 인도가 가장 높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난처한 과정과 과제 속에 있다. 무엇보다 아동도서에서만 타국의 추천목록들을 굳이 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록을 그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일조차 관심 자체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일본의 아동도서 목록에 종속되게 되었다는 상황까지 갖게 됐다. 나는 이것을 목록으로 예시할 수 있다.

### 너무나도 흡사한 한국과 일본의 목록

일본독서학회에서 1959년에 조사한 일본 국민학교 어린이의 독서경향목록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것은 가장 많이 권장되고 또 그 권장에 의해 가장 많이 읽히는 것에 대한 결과적 서열 목록이다.

에디슨, 쿨리부인, 노구치 히데요(野口英雄), 니노미야 긴지로(二宮金次郎), 나이팅게일, 베토벤, 헬렌 켈러, 링컨, 과량세, 알프스의 소녀, 아아 무정(레미제라블), 사랑의 집, 키다리 아저씨, 사랑의 학교, 아라비안 나이트, 분홍신, 집없는 소년, 이습이야기, 괴도 루팡, 암굴왕, 그림동화, 거지왕자, 소공자, 소공녀, 백설공주, 신데렐라. 삼총사, 어머니를 찾아 3만리, 백조왕자, 피노키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성냥파는 소녀, 꿀벌마야의 모험, 로빈슨 표류기, 작은 아씨들.

보다시피 이 목록에 노구치 히데요 대신 이순신만 넣으면 새로 계산해 볼 것도 없이 100% 같은 우리의 아동도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15개 국민학교 표준 도서'라는 연구가 있는데 (연구자·김현희) 이 목록을 함께 보는 일도 의미가 있다. (15개교 중 5개 이상교의 빈도수를 가진 목록)

강감찬(7), 걸리버여행기(10), 과학교실(5), 그리스신화(7), 그림동화집(5), 김유신(9), 꿀벌마야의 모험(5), 난중일기(5), 레 미제라

블(6), 링컨(6), 몽테크리스토 백작(6), 미운 오리새끼(9), 발견과 발명(9), 백설공주(14), 보물섬(5), 빨간 머리 앤(5), 사랑의 학교(13), 선녀와 나무꾼(6), 세종대왕(7), 소공녀(8), 소공자(8), 슈바이처(8), 신사임당(7), 심청전(9), 쌍무지개 뜨는 언덕(5), 아라비아 나이트(6), 안테르센 동화(15), 알프스의 소녀(6), 애국의 등불(5), 영클 톰스캐빈(9), 에디슨(6), 왕자와 거지(8), 유관순(9), 을지문덕(5), 이솝이야기(15), 이순신(15), 작은 아씨들(8), 집없는 천사(11), 콩쥐 팥쥐(15), 쿨리 부인(10), 톰소여의 모험(9), 파브르의 곤충기(13), 80일간의 세계일주(5), 플란더스의 개(7), 플루타크 영웅전(6), 피노키오(15), 피터 팬(7), 한국전래동화집(9), 한국현대동화집(15), 해저 오만리(7), 헬렌 켈러(5), 홍길동전(6), 흥부와 놀부(8)

이상 53개 목록 중 우리의 책이 17종인데, 그중 7종이 위인전이고 현대동화는 「쌍무지개 뜨는 언덕」 「한국현대 동화집」 뿐이다.

이 조사는 이 목록이 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범이 무엇인가도 분석했다. (이 규범이라는 것이 실은 가장 한국적인 형식인데, 무척 도식적이며 무의미한 것이라고 나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괄호안은 빈도수)

①경애(29) ②용감성(16), 민주성(16) ③지혜(14) ④애국애족(11) ⑤희생과 봉사(7), 성실(7) ⑥신념(6), 명량(6) ⑦침착(4), 자아혁신(4), 겸손·관용(4)

각 나라의 아동도서로서의 동화책들은 나라가 달라도 결국 같은 인류이므로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의 전설과 민담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가 표현하는 의지가 같은 것은 아니다. 이는 서봉연교수의 논문 「한·독 아동도서에 관한 분석적 비교」에서 소중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제가 비슷한 동화의 분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해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한국)와 「늑대와 일곱마리의 아기염소」(독일)의 비교

△교훈 : 아이들이 어머니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복종과 외부침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차이 : ① 어머니상의 묘사에서 한국은 희생적·무력·소극적이며 독일은 적극적이다.

② 아이들이 구출되는 방식에 있어 한국은 하느님이 준 빛줄, 즉 비현실적인 힘에 의존한데 비해 독일은 어머니라는 현실적인 힘을 강조했다.

####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을 여기에 옮기는 것은 아동도서의 추천목록이란, 그것이 어디엔가 있다 하더라도 이야말로 그것을 단순히 자신의 것으로 전횡화하거나 또는 비교할 가치로서 전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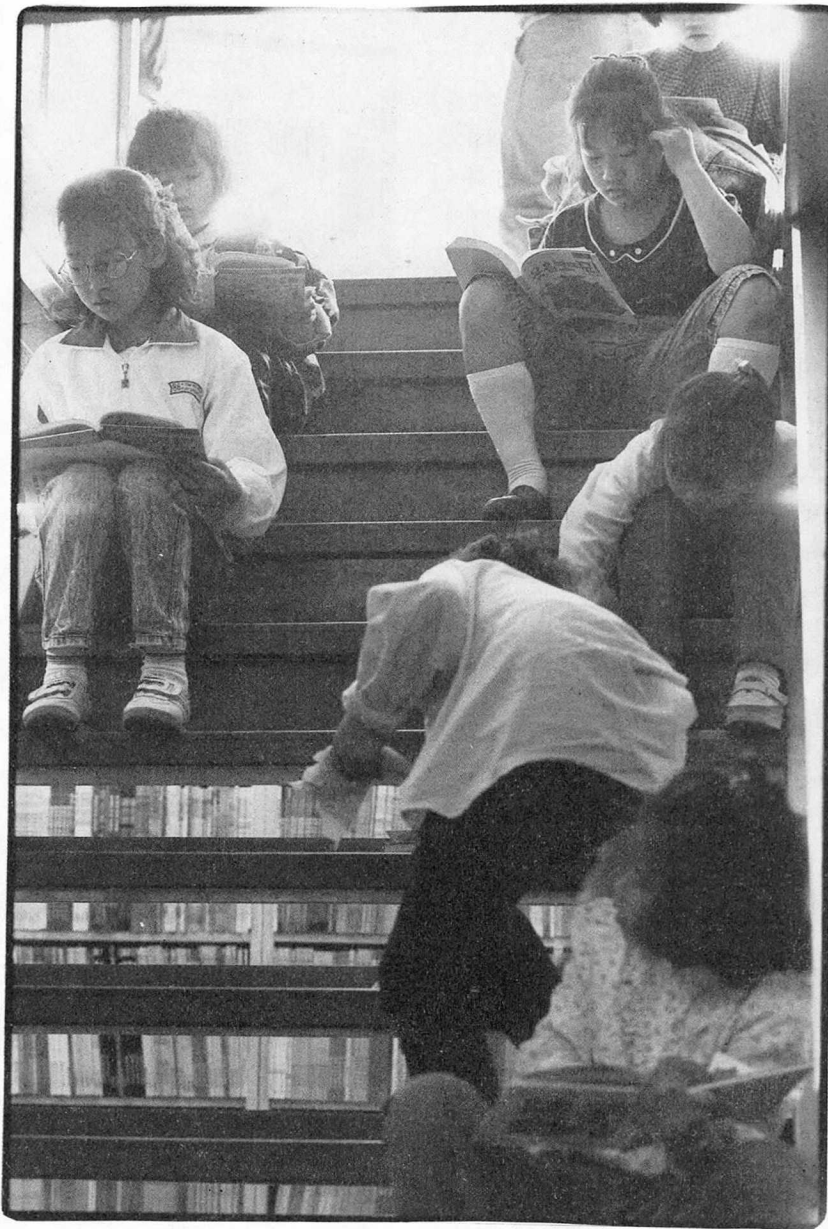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아동들에게서 수용되고 있느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과 외국것의 비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에 유념해야 할 당위가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의 우리의 취약성은 너무나 넓고 깊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어린이용으로 새로 쉽게 써 주어야 한다는 발상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린이용 도서란 기실 성인문화가 가진 가장 최선의 것일 뿐이다. 그리고 가끔 성인들의 감수성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어린이들의 감수성으로 확인되는 책들이다. 따라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과 같은 경우처럼 이는 쉽고 짧게 줄여 쓴 것으로서가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의 어느 부분을 완전히 읽게 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는 물론 「레미제라블」을 국민학교 과정에서 직접 읽힌다. 영국도 국민학교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원문 그대로 읽힌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전설·민담, 그리고 현대의 어린이용 동화들의 도서들이 아동도서라는 분리된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성인도서들의 평가기준과 같은 관점에서 그 질이 논의되고 그럼으로써 추천목록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동도서출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 다행



어느 봄날의 오후 (사진·전혜경)

히 대단히 크고 원활한 것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세계전반의 모든 아동도서들이 거의 다 우리말로 수용돼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평가나 분석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하며 또한 가장 무시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기성문화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수용되는 사례의 작품이 우리에게서 참으로 드물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土地」를 그대로 읽힌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문화감수성이 평균적으로 보다 다양하지 않거나 보다 고양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교육이 문화적 상상력의 제고를 위한 창의성 촉진에 진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앞에 예시된 일본 목록이 보이듯이 지나간 시대에 너무나 머물러 있는 내용들이라는 문제도 있다.